무안공항 일본노선 감축 현실화

제주항공 도쿄·오사카 주 4회로 축소, 티웨이 오이타 중단
중국 장자제 신규 취항 보류…공항 활성화 악영향 우려

국제선 다변화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려던 전남도가 악재를 만났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중국 신규 노선 취항 중단, 경기 침체로 여행 심리마저 위축되면서다. 자칫 찾아온 공항 활성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매일 운항하던 무안공항~오사카 노선을 오는 26일부터 주 4회로 감축,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도쿄(나리타) 노선도 다음달 16일부터 주 7회 운항 일정을 주 4회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무안~후쿠오카 노선은 일단 현행(주 4회) 대로 운항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한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지난달부터 본격화하고 있어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웨이 항공도 지난 5일부터 주 3회 운항하던 무안~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기타큐슈 노선도 무안공항 활주로 공사가 끝났지만 여태껏 운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일본 노선 이용객도 올해 1월 2만4000명 수준에서 7월 1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노선 감축이 현실화되면 감소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대신 중국 신규 노선을 늘려 공항 활성화를 꾀하려던 전략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항공 당국이 최근 중국 전 노선에서 신규 운항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애초 22일부터 취항키로 했던 중국 장자제 구간은 보류됐고 옌지(延吉) 구간만 21일부터 운항한다. 또 홍콩 시위 등으로 기존 마카오를 통해 홍콩을 둘러보던 여행 일정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적 항공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중국·일본·대만·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러시아 등 국내외 19개 노선을 유치한 데 이어 중국 해남도와 괌 노선 취항에 공을 들였다.

이 때문에 다양한 국제선을 유치, 공항 활성화로 이어가려던 전남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제선을 다양하게 유치하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 대한 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해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따르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만명(54만3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 들어 60만명을 돌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강인규 나주시장, 김회천 한전부시장,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20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한전공대 설립 부지 기부약정서 전달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부영그룹과 한전공대 설립 부지 기부 약정식

전남도는 20일 서울 부영빌딩에서 한전·나주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그룹과 한전공대 설립 부지 40만㎡에 대한 기부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영그룹이 지난 1월 한전공대 입지 선정 이후 6개월 이내 부지(40만㎡)를 기부채납 형태로 무상 공급키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810억원(감정평가예상금액) 규모의 부지를 한전공대 법인측에 증여키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강인규 나주시장, 김회천 한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유권 이전은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1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등은 이번 기부 약정을 계기로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전공대는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CC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6월 총장 후보자 초빙 공고를 내고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 속도
농·산업 단지 조성 본격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유리온실, 청년보육단지 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농·산업 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 예정부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데이터센터·지역 농업인 음식점·농수산물 가공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청년 보육센터와 실증단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용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부지 매입비 31억 원을 올해 고흥군 예산에 반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주관으로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금액이 결정되면 9월까지 부지 소유권을 고흥군으로 이전등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기반조성 시설 조성 등을 맡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속도 낸다

TF팀 구성 대응방안 마련

전남도가 핵심 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경제 구축’과 관련,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가 ‘블루 이코노미’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한 데 따라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

블루 이코노미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인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전남의 풍부한 청색(블루)자원과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남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과장급 18명과 외부 자문위원 30명 등으로 6개 팀 규모의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20개 정책쇼핑팀을 구성해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을 돌아다니며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도청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블루 이코노미를 언급한 것은 대단이 의미있는 일”이라며 “내실있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다음달 F1 경주장서 드라이빙 아카데미

F1 경주장에서 드라이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오는 9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연다.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교통 안전운전 확산을 위해 드라이빙 아카데미와 체험 패키지 과정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레이싱 입문자와 대회 참가자를 위한 과정이다. 체험 패키지 과정은 개인은 물론 기업연수팀 등에게 경주장 체험 주행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기증받은 차량 14대(준중형 10대·대형 SUV 2대·준중형전기차 2)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재난 안전’ 과정과 ‘모터스포츠 바로 알기’ 과정을 신설, 자동차 안전문화 확산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야외활동 진드기 조심 하세요”

광주시 8월 SFTS환자 5명
외출시 긴팔·긴바지 착용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환자가 전월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에 의해 물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FTS의 경우는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 병원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180건 중 11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중 8월 한 달간 의뢰된 24건 중 5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보면 가장 높은 검출률이다.

증상은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의 잠복기 이후 38~40도에 이르는 고열,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증상이 동반되며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고 중증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소견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긴바지, 양말 등을 착용해 진드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풀밭에서는 돗자리 등을 이용해서 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이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은 세탁을 해야 한다.

서진종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은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진드기를 버리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드기 종 분류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즉시 검사할 수 있다”며 “혹시 진드기에 물렸는데 고열과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증상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